



5월의 기도

1.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 땅의 모든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 부부, 형제자매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그들의 관계 속에서 깊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가정이 더욱 굳건히 서길 바라며, 이 사랑이 우리 사회 전체에 퍼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2. 정치적 갈등이 대화와 이해를 통해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서로의 의견이 상충해 충돌할 때, 폭력이나 분열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지도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평화로운 정치 환경을 유지하며 국민들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3.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님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보호가 그들의 가정을 감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가정 구성원들이 서로를 돌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들의 가정이 주님의 빛을 비추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4. 저희 DCEM이 주님의 사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며, 서로를 격려하며 협력하는 단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어, 저희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승,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사랑조용기사랑, 감사조용기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별칭 및 익명으로 후원해 주신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예금주 : 디시이엠
계좌번호 181-22-02127-7 혹은
256-890020-00804 (하나은행)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심은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8)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더 나은 내일과 더욱 큰 행복을 얻으며 좀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11-12)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고 기이한 일이 인생에 일어나리라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한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밭이고 생각은 씨앗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마음 밭에 두 종류의 씨가 뿌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뿌린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탄이 뿌린 가라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밭에 어떠한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 어떠한 것을 추수하느냐가 결정되므로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패배를 승리로, 죽음을 생명으로, 질병을 건강으로, 불행행운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여러분의 삶과 미래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되려면 여러분이 회개함으로써 마음의 밭에 심어진 가라지를 다 뽑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파괴와 절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은 말씀의 씨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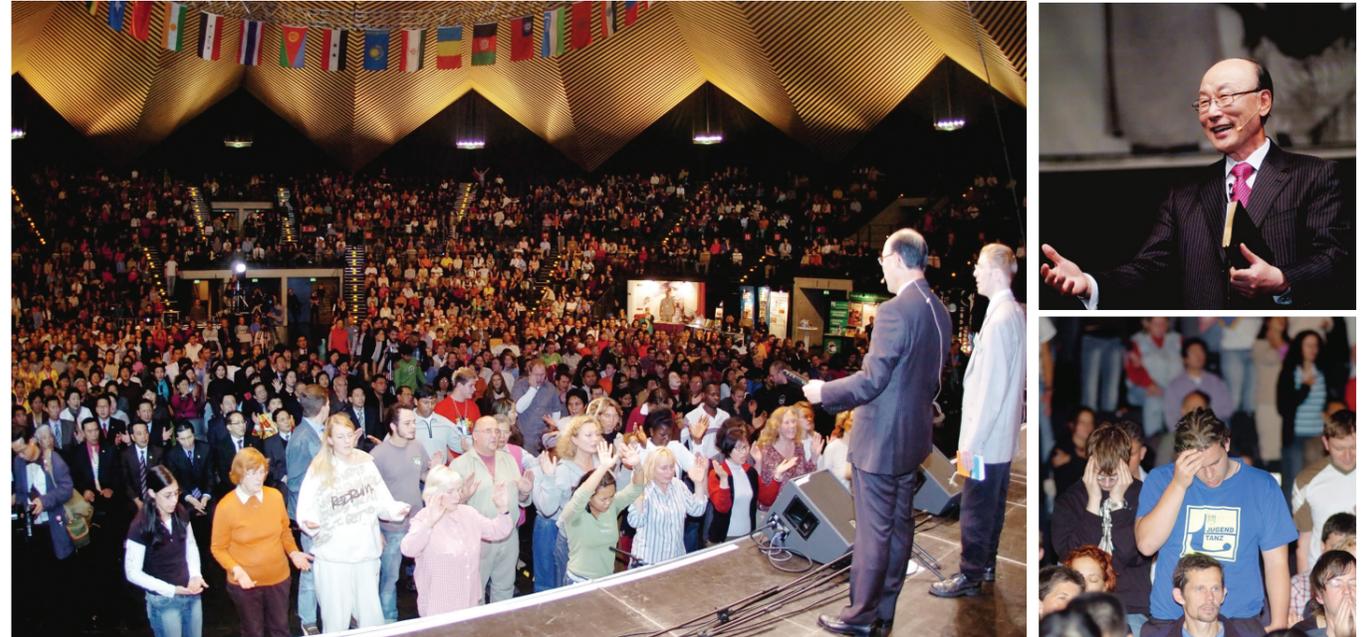
DCEM에서는 故 조용기 목사님의 선교 사역의 발자취와 새로운 선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되돌아보는 DCEM 2005년 해외성회



개신교의 역사적 배경을 고스란히 간직한 독일에서 개최되었던 '미션 라이브 컨퍼런스 2005' 성회를 회고해보고자 한다. 본 성회는 유럽의 영적 각성을 위해 조용기 목사를 초청으로 2005년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성황리 개최된 성회다.

독일예수전도단이 주최하고 DCEM이 주관한 성회로, 독일을 비롯해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스위스, 체코, 우크라이나, 프랑스, 한국, 아프리카 등 총 50여 국가에서 찾아온 젊은이들로 가득했다. 베를린 템포드롬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성회는 영적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일의 기독교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심어준 성회가 되었다. 특히 1968년 동독에서 발효된 사회주의 헌법 개정



발표 이후 국가교회와 자유교회로 구분되면서 쇠약해지기 시작한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뜨거운 성령의 불을 지핀 성회였다.

'미션 라이브 컨퍼런스 2005'에는 이를 동안 연인원 6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듣고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젊은이들과 목회자들은 성회가 진행되는 동안 복음전파가 어려운 중앙아시아 지역(10/40창)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며 무슬림 지역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선교전략도 마련했다.

조용기 목사 초청 '미션 라이브 컨퍼런스 2005'는 1700년대 초부터 1백년 동안 오순절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던 헤른후트(herrnhut)에서 예수전도단의 요청에 의하여 당초 열릴 예정이었으나 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도인 베를린으로 옮겨 성회가 진행되었다. 헤른후트는 18세기 독일의 복음주의 운동의 중심점을 마련한 진젠도르프 백작을 통하여 형성된 모라비안 교도들의 뜨거운 기도운동이 일어났던 역사적인 곳으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들을 배출한 지역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곳에서 신앙을 지켜

온 모라비안 교도들은 훗날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러한 개신교적 역사가 있는 독일에서 열린 조용기 목사 초청 '미션 라이브 컨퍼런스 2005'는 침체된 유럽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도전을 심어준 성회였다. 독일 전지역에 성령의 불을 놓고자 하는 취지 속에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수천여 명의 젊은이들과 목회자들이 참석해 예수 안에 참된 소망과 기쁨, 그리고 구원이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한 성회였다.

한편 '미션 라이브 컨퍼런스 2005'에는 조용기 목사 외에 인도예수전도단 대표 '샘 드 하렘', 이슬람 선교전문가 '프레드 마크', 머시미니스트리 창설자인 '게리 스테판' 등이 강사로 참여했다.

'10/40 창(10/40 Window)은 선교단체들이 규정하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북위 10도-40도 사이에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 창 지역은 러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 용어는 1990년 선교 전략가인 루이스 부시에 의해 만들어졌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5절)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1.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인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보다 조금 낮은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인간이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예로, 모든 동물들을 아담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셔서 아담이 그 동물들을 보고 부르는 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살던 에덴동산에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도전하는 범죄와 행위를 했기 때문에 형벌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았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담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담이 대답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창 3:10)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었던 이유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입니다.

2. 지위와 권세를 잃어버린 인간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와 권세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 때문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저주와 영경귀가 가득한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피땀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절망인 것입니다. 또,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딸아들인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이

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고 인류는 탐욕의 노예가 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인간은 아담 이후에도 계속하여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인간의 지위와 권세를 유지하려고 제2의 선악과, 즉 바벨탑을 건설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죽음과 심판을 피하려 인간이 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그 이후의 심판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회복된 인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 용서를 받고 죄 때문에 강등된 인간의 지위와 권세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4~15)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옛사람이 지나가고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죄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4차원의 세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슬픔과 고통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시간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실 일을 인간들이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하니 될 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요,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요, 사회적인 문제도 아니요, 근원적인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이러한 삼중축복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해야 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기록된 말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꿈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뭘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꾸고 믿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환경과 운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는 세상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으라고 했으니 있게 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배후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는 것이요, 건강도 다스리는 것이요, 생명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그대로 두면 역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에 담아놓고 말씀을 통하여 꿈을 꾸고 말씀을 통해서 믿고 말씀을 통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고 성령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지위와 권세를 회복한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12

새로운 시대의 도래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블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마 4:12~13)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구약의 율법 하에서 보냄 받은 마지막 선지자이며 그를 끝으로 구약성경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앞서서 복음을 증거했고 이제 갈 때가 다가왔습니다. 사명이 끝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사명이 끝났으니 이제 떠나갑니다. 떠날 때는 떠나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율법의 시기가 끝나고 새로운 복음의 시기가 오자 세례 요한은 헤롯의 행위



를 비판하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불법적으로 아내로 취하자 세례 요한이 그것을 꾸짖은 것입니다. 헤롯은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고 결국 그는 감옥에서 참형을 당하여 목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소개한 최후의 선지자라고 예수께로부터 칭찬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듯



하는 장엄한 능력의 모습으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감옥에서 끌려 나와 목 베임을 당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생명이 끝나면 다 이곳을 떠나갑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크고 작은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끝나면 더 이상 이 땅에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니까 세례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구약의 율법이 끝났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구약의 시대가 이제 마지막 선지자와 함께 종결되는 것

입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신약시대를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이 끝나고 신약의 예수님이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라'며 외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와 의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잡힘을 들으신 예수님은 드디어 본격적인 신약의 도래를 아시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께서 태어나셔서 자란 나사렛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스블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마음이 착하고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금식하고 돌아오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 회당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언덕으로 몰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예수님을 받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못하셨으나 가버나움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의 목회중심지의 본부를 가버나움으로 삼았습니다.

*영산강해는 조용기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세계」에서 요약 발췌하였습니다.